



## II

# 2020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

## 1. 살인

### 1) 범죄유형

- 2020년에는 총 805건의 살인범죄<sup>19</sup>가 발생하였다. 이중 일반 살인범죄가 694건으로 86.2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존속살해 60건(7.5%), 자살교사/방조 43건(5.3%), 영아살해 6건(0.7%), 촉탁살인 2건(0.2%)이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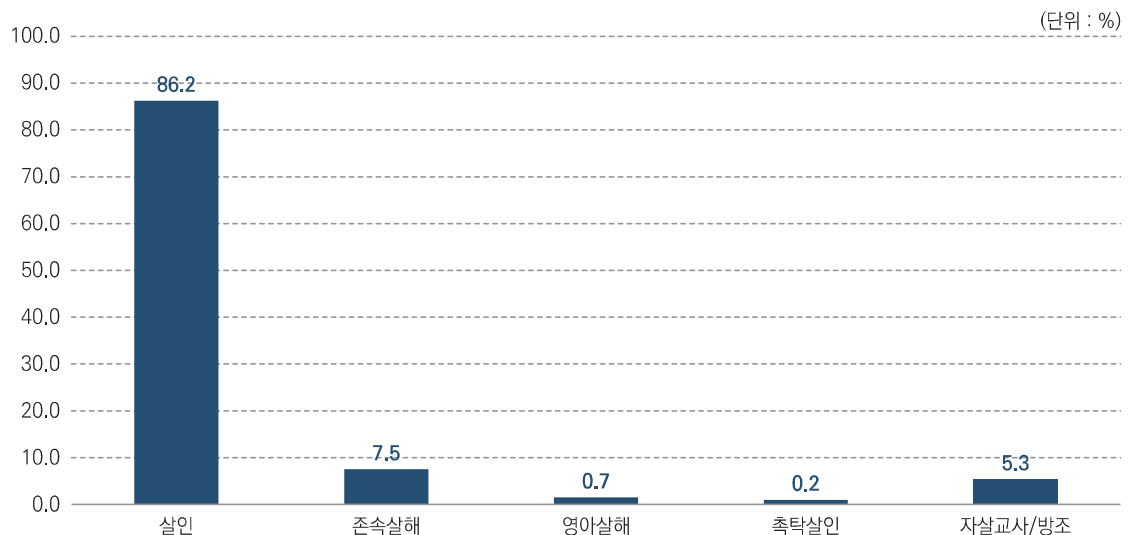


그림 24 주요 살인범죄 유형별 구성비

19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살인(기수), 살인(미수, 예비, 음모, 방조) 범죄가 모두 포함

## 2) 범죄발생시간

-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<sup>20</sup>은 밤(20:00~03:59, 35.5%)이었으며, 그 다음으로는 오후(12:00~17:59, 26.1%), 오전(09:00~11:59, 12.2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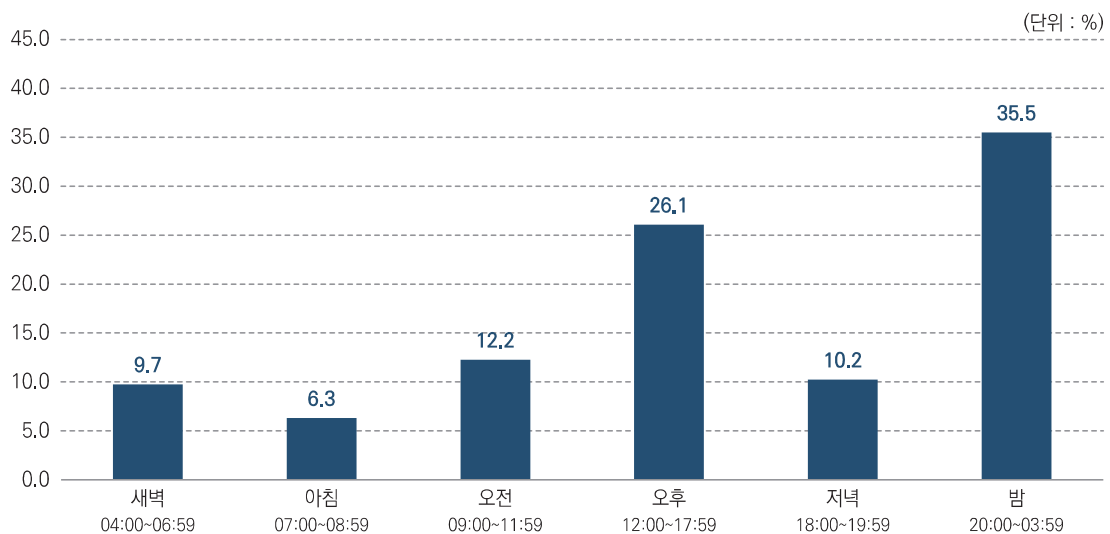


그림 25 살인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## 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살인범죄 피해자의 59.1%는 남자였으며, 40.9%는 여성이었다.
- 살인범죄 피해자의 70.5%가 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.
- 남성피해자는 51세~60세, 61세 이상이 각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41세~50세 순이었다. 여성피해자는 51세~60세, 61세 이상이 각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41세~50세 순이었다. 15세 이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수는 남성아동 25건, 여성아동은 11건으로 남성아동이 여성아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, 피해비율은 남성아동이 6.0%로 여성아동에 비하여 2.2%p 높게 나타났다.

20 발생시간별 비율은 발생시간이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, 이하 작성되는 각 범죄별 항목별 표, 그래프에 표시된 비율은 별도로 언급된 경우 외에는 항목별 미상을 제외하고 작성된 통계임

표 24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건, %)

피해자 연령	피해자 성		계
	남성	여성	
6세 이하	16(3.9)	6(2.1)	22(3.1)
7세-12세	6(1.4)	3(1.0)	9(1.3)
13세-15세	3(0.7)	2(0.7)	5(0.7)
16세-20세	9(2.2)	5(1.7)	14(2.0)
21세-30세	44(10.6)	28(9.8)	72(10.3)
31세-40세	51(12.3)	34(11.9)	85(12.1)
41세-50세	73(17.6)	62(21.7)	135(19.3)
51세-60세	106(25.6)	73(25.5)	179(25.6)
61세 이상	106(25.6)	73(25.5)	179(25.6)
계	414(100.0)	286(100.0)	70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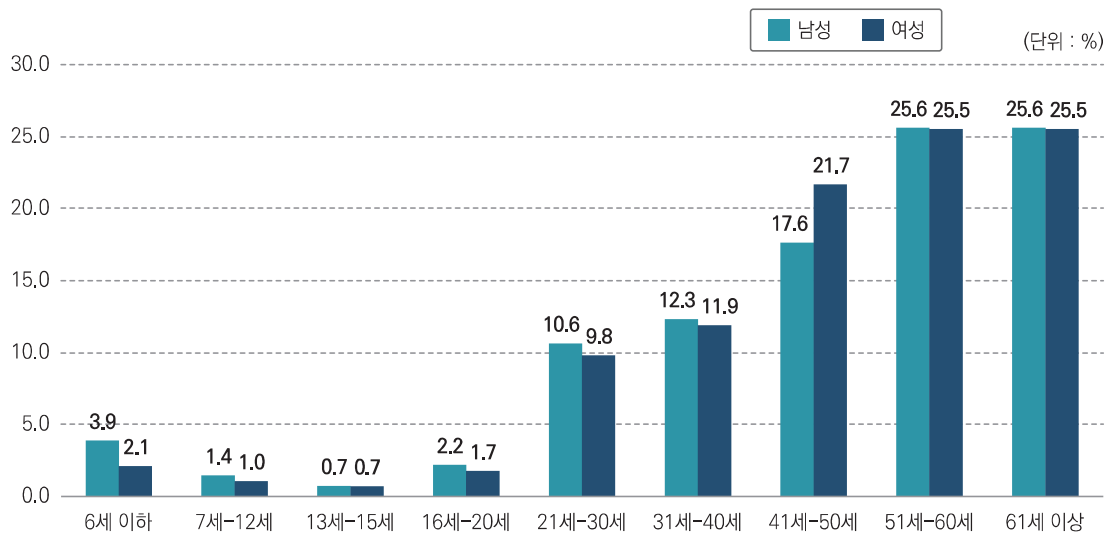


그림 26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#### 4) 신체피해정도

-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97건으로 전체의 41.0%였다. 살인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208건(28.7%),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220건(30.3%)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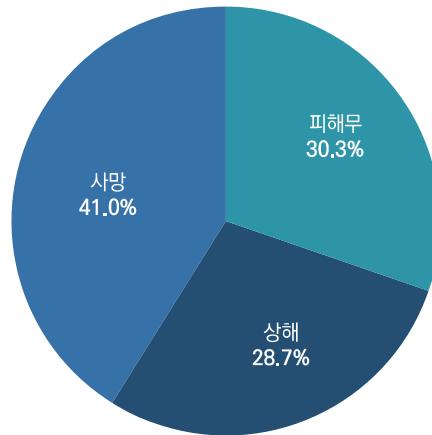


그림 27 살인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

## 5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, 전체의 16.8%가 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. 타인 외의 관계에서는, 친족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24.3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6.3%), 애인(7.5%), 친구/직장동료(7.5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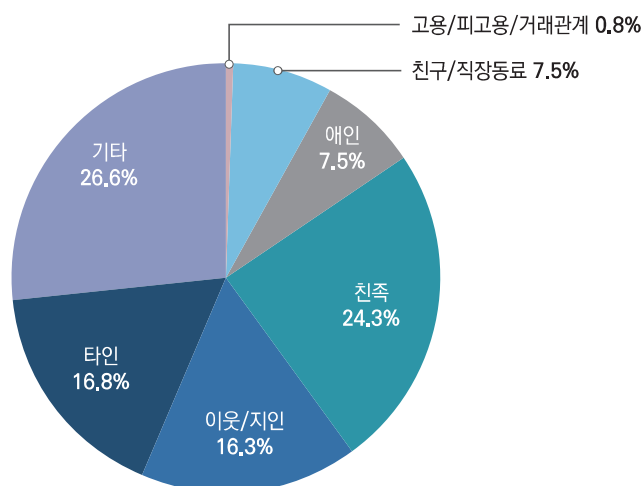


그림 28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## 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79.4%가 남성이었으며, 여성은 20.6%로 나타났다.
- 남성범죄자는 51세~60세 연령층이 27.2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41세~50세, 61세 이상, 31세~40세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는 19세~30세 연령층이 26.5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51세~60세, 41세~50세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의 40세 이하 비율은 45.8%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범죄자(32.1%)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**표 25**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, %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7(1.1)	2(1.2)	9(1.1)
19세~30세	97(15.2)	44(26.5)	141(17.5)
31세~40세	101(15.8)	30(18.1)	131(16.3)
41세~50세	131(20.5)	31(18.7)	162(20.1)
51세~60세	174(27.2)	32(19.3)	206(25.6)
61세 이상	129(20.2)	27(16.3)	156(19.4)
계	639(100.0)	166(100.0)	805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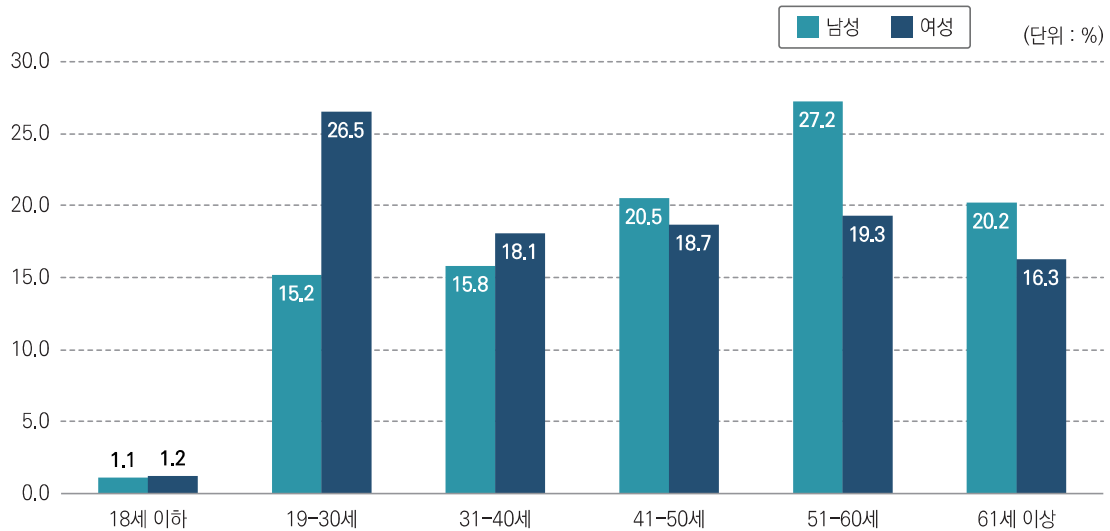


그림 29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## 7) 범죄자의 전과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39.5%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0.8%이며,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는 39.7%로 나타났다.

## 8)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4.4%가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. 37.6%는 주취상태였으며, 8.0%는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11.1%로 남성범죄자(7.4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, 남성범죄자 중 주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41.2%로 여성범죄자(20.4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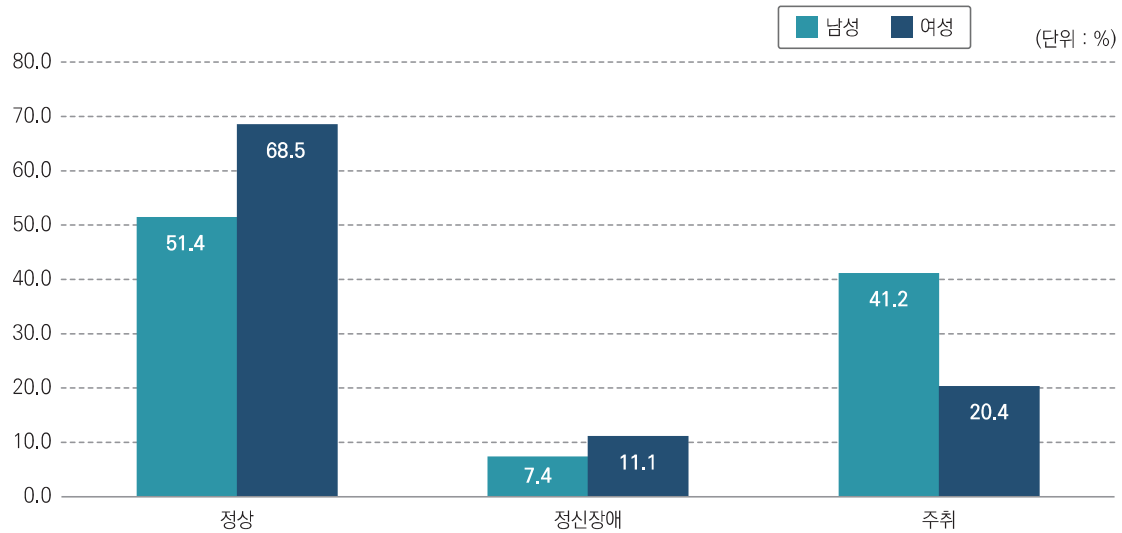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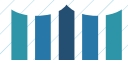


그림 30 살인범죄 범의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## 2. 강도

### 1) 범죄발생시간

- 2020년 총 692건의 강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중 42.6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 전체적으로 강도범죄의 48.0%가 저녁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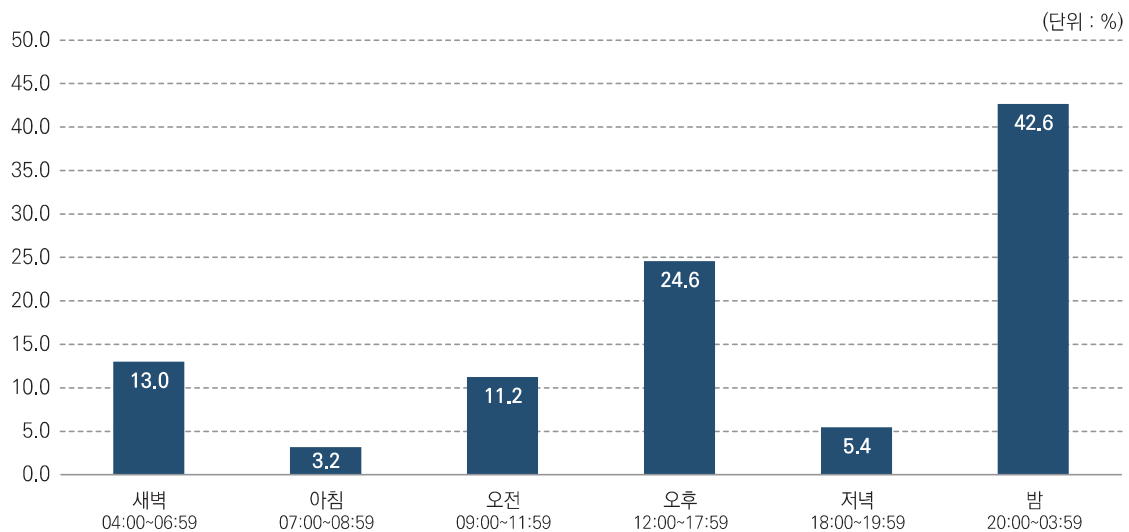


그림 31 강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